

따비에  
5주년  
활동보고서  
2010 – 2015

버마에서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나무의 이름처럼  
따비에는 버마 어린이의 행복을 꿈꿉니다



버마(미얀마) 어린이 교육 지원 단체  
**따비에**



**마웅저** 따비에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머물렀던 한국에서는 저는 늘 '버마 사람 마웅저'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버마 사람이 되어 '따비에 마웅저'라고 말합니다.

2년 전에 20년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초기에는 여기 버마에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도 그렇지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마 사람들도 저의 버마어 발음과 말투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버마를 느끼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버마에 다시 와서는 큰누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큰누나는 저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엄마와 다름 없고 저를 한국으로 피신시켜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누나의 자녀, 즉 저의 조카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카손자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적응이 잘되지 않았습니다(이제는 할머니가 된 카이몬이 더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카손자들은 제가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막상 저를 보니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차림도 별로고 누나 집에서 얹혀살고 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지만, 저희 따비에의 활동을 많은 버마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국의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따비에가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버마에서 따비에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계속 함께해 주고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비에는 한국과 버마(미얀마)에서 자라났습니다. 버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걷고 있고 따비에에는 버마 시민들이 원하는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와 교육활동에 주력하려 합니다. 5년간 많은 일을 하려 했고, 앞으로도 길은 멀지만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분쟁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비에를 부탁드립니다.



**정보임** 따비에 공동대표

2010년 마웅저 대표와 여러 운영위원 분들과 버마 어린이를 위한 단체를 만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 분들과 회원 분들의 참여가 지금의 따비에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단체 사무실에 마웅저 대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따비에가 어느덧 한국과 버마 양국에서 사무국이 왕성히 활동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마음껏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오랜 시간 대가 없이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따비에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따비에에는 아직 작은 단체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 하나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들어온 작은 성과들이 더욱 자랑스롭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우리 회원들의 힘만으로 버마에 땅을 사고 작고 소박하지만 따비에 도서관을 완성했습니다. 동화책이 없던 곳에서 따비에가 만든 동화책들을 본 탄 동화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아이들을 위한 출판과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했던 따비에의 꿈이 그리 허황된 것은 아니었음을 느끼고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지금 버마에 민주화의 싹이 트고 있듯이 버마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아마도 곧 올 것이라는 꿈을 품습니다. 비록 작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계속 지켜 가고 과정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비에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따비에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회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5살 따비에에게



**영담스님** 사단법인 하얀코끼리 이사장, 부천 석왕사 주지

따비에가 창립 5주년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마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이 티 없이 맑게 살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비에는 그동안 버마(미얀마)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 설립 지원, 어린이책 지원, 학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버마 청소년 교류 등 버마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해왔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비에 창립 5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버마 난민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소납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 하얀코끼리도 '아이들은 배워야 하고, 아픈 이는 치료받아야 하고, 배고픈 이는 공양을 해야 한다'는 구호 아래 국적, 이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백년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하얀코끼리도 버마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 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따비에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가 훈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영중** 성공회대 교수

따비에의 자그마한 푸른 잎이 커다란 나무를 뒤덮듯이, 수많은 따비에 나무들이 한국과 버마를 온통 뒤덮어, 지친 어린이들에게 심터를 제공하고, 책을 읽으며 새 세상을 만드는 꿈을 꾁니다. 따비에의 모든 분들은 작은 잎이자, 큰 나무이며, 모든 이의 커다란 그늘입니다.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따비에의 그늘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강인남**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대표

책, 교육,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숲이 되어 가는 따비에 고맙습니다. 버마 주민의 모습 그대로가 버마의 가능성입니다. 그들의 모여진 힘으로 주민의 참 민주주의를 꽃 피울 그날까지 따비에를 응원하며 함께 숲이 되겠습니다. 따비에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원민우** 전 미얀마공동체 회장, 버마 시민상 한국지부 대표

버마에서는 도서관 하나 시작이 감옥 하나 문 닫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비에는 버마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어린이책을 출판하고 도서관을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따비에가 5주년이 되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ဦးဝင်းမြင့်ဦး (မြန်မာအသင်း)

စာကြည့်တိုက်တစ်ခု ဖွင့်လှစ်ခြင်းသည် အကျဉ်းထောင်တံခါးများ ပိတ်သည်နှင့် တူပါသည်။ သပြေအဖွဲ့မှ မြန်မာပြည်တွင် စာကြည့်တိုက်များ ဖွင့်လှစ်ခြင်း၊ ကလေးလူငယ် စာအုပ်များ ထုတ်ဝေခြင်း၊ စာကြည့် တိုက်များသို့ ဝေမျှပေးခြင်းများဟာ ကလေးငယ်များရဲ့ အနာဂတ်မျှော်လင့်ချက်များ ရှင်သန်ကြီးထွားရာမှာ အနာဂတ်ပန်းတိုင်ကို လျှောက်လှမ်းရာမှာ များစွာ အထောက်အကူ ဖြစ်စေပါတယ်။ သပြေရဲ့ ငါးနှစ်မြောက် နှစ်ပတ်လည်အတွက် များစွာ ဂုဏ်ယူကာ ဝမ်းမြောက်ဝမ်းသာ ဖြစ်မိပါတယ်။ ရှေ့ဆက်ပြီးလည်း များစွာ ဆောင်ရွက်နိုင်ပါစေ...



**짐미 U Jimmy** 88 Generation Open Society 대표

따비에는 자량과 우쭐됨 없이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따비에는 버마 사회에서 보석과도 같습니다. 따비에 5주년을 축하합니다.

**ဦးဂျင်မီ (ခေမျိုးထက် ပွင့်လင်းလူ့အဖွဲ့အစည်း)**

ပွင့်ဖတ်မရှိ  
ဝတ်ဆံမပါ  
ရောင်စုံတွေ မထည့်ဝါဘူး  
သပြေဆိုတာ  
အောင်မြင်ခြင်းရဲ့ ပန်းရတနာ။

**미야우 Daw Mya Oo** 양곤 국립도서관 관장

Today a Reader, Tomorrow a Leader

책 읽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책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자기 주도의 힘을 기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책임감과 책무를 가지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학과 IT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 제일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따비에는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5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ဒေါ်မြဦး (အမျိုးသားစာကြည့်တိုက်)**

Today a Reader, Tomorrow a Leader!

စာဖတ်ခြင်းအလေ့အထကို ကလေးဘဝကပင် လေ့ကျင့်ပေးရသည်။ ငယ်စဉ်ကပင် စာဖတ်သောသူသည် အတွေးအခေါ်ဉာဏ်ရင့်သန်၍ တီထွင်ဖန်တီးနိုင်စွမ်း၊ အမှားအမှန် ခွဲခြားနိုင်စွမ်း၊ ဦးဆောင်ဦးရွက်ပြုနိုင်စွမ်း မြင့်မားပြီး ခိုင်မာသော ရည်မှန်းချက်ကို ချမှတ်နိုင်သည်။ ပြတ်သားသော ဆုံးဖြတ်ချက်များဖြင့် မိမိရည်မှန်းချက် အောင်မြင်အောင် ကြိုးစားနိုင်သူများ ဖြစ်လာမည်။ တိုးတက်သော ယခုခေတ်တွင် ကလေးများကို စာပေဗဟုသုတ အပြင် ITနည်းပညာကို လေ့လာတတ်မြောက်စေမည့် အခွင့်အလမ်းများနှင့် လူထုအတွက် အကောင်းဆုံး ပေးနိုင်သည့် နည်းလမ်းများကိုပါ လေ့ကျင့်ပေးရန် လိုအပ်လာပါသည်။ ဤလုပ်ငန်းများအတွက် အသင့်တော်ဆုံး နေရာမှာ စာကြည့်တိုက်များပင် ဖြစ်ပါသည်။



**티아웅 U Htay Aung** 새사회당 New Society Party 사무국장

따비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보건과 교육을 위해 활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따비에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버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는 버마-태국 국경지역의 난민 어린이, 고아,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버마 이주민들이 함께 버마-태국 국경지대 매솟에서 CDC라는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비에에서 일하는 마웅저는 88세대의 학생 활동가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활동을 지지해 왔고 지지할 것입니다. 따비에와 마웅저는 버마 아이들의 미래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비에에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비에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인종과 종교를 따지지 않고 국경 없이 활동하는 따비에의 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ဦးဌေးအောင် (လူ့ဘောင်သစ်ပါတီ)**

သပြေဆိုတဲ့ ကလေးလူငယ် ပညာရေးနှင့် ကျန်းမာရေး ထောက်ပံ့မှုအဖွဲ့လေး ဖွဲ့စည်းထူထောင်ခဲ့တာ ရှုနစ်ပြည့်ပြီ။ သပြေကို ကိုရီးယားနိုင်ငံမှာ စတင်မွေးဖွားခဲ့ပေမယ့် အခုတော့ မြန်မာပြည်မှာ ကြီးထွားလာခဲ့ပြီ။ သပြေစာကြည့်တိုက် အပါအဝင် သပြေရဲ့ ကလေးစာပေ ဖွံ့ဖြိုးတိုးတက်ရေး၊ စာဖတ်ရန်မြှင့် အစီအစဉ်တွေ၊ ကျန်းမာရေး ပညာပေး အစီအစဉ်တွေနဲ့ အတော်ကို တိုးတက်လာခဲ့ပြီ။ သပြေကို မထူထောင်ခင် ထိုင်း-မြန်မာနယ်စပ်က မိဘမဲ့ ကလေးလူငယ်တွေရဲ့ ပညာရေး လိုအပ်ချက်တွေအတွက် အကူအညီပေးတဲ့ "မြန်မာကလေးသူငယ် ပညာရေး ထောက်ပံ့မှုအစီအစဉ်"ဆိုတာကိုလည်း ကိုမောင်ဇော်က ဦးဆောင်ပြီး ကိုရီးယားရောက် မြန်မာများနဲ့အတူ ကိုရီးယားလူမျိုးတွေနဲ့အတူ ထိုင်း-မြန်မာနယ်စပ်မြို့ဖြစ်တဲ့ မဲဆောက်မြို့မှာ အခမဲ့ စာသင်ကျောင်းတွေ တည်ထောင် ခဲ့သေးတယ်။ CDCအထက်တန်းကျောင်းဆိုတာ မြန်မာကလေးသူငယ် ပညာရေး ထောက်ပံ့မှု အစီအစဉ်ရဲ့ အောင်မြင်မှုမှတ်တိုင်ပေါ့။ ကိုမောင်ဇော်ဟာ ရှစ်လေးလုံး အရေးတော်ပုံ ကျောင်းသားတစ်ဦးပါ။ အရေးတော်ပုံကြီး နောက်ပိုင်း လူ့ဘောင်သစ်ပါတီနဲ့ ဗမာနိုင်ငံလုံးဆိုင်ရာ ကျောင်းသားသမဂ္ဂများ အဖွဲ့ချုပ် (အောက်မြန်မာပြည်) မှာလည်း ကျနော်တို့နဲ့အတူတူ သမိုင်းပေးတာဝန်တွေ ထမ်းဆောင်ခဲ့သူပါ။ ကျနော်တို့ ထောင်ကျတော့ ကိုမောင်ဇော်က ကိုရီးယားနိုင်ငံကို ထွက်သွားတယ်။ ကိုရီးယားနိုင်ငံကနေ သူတတ်နိုင်တာတွေကို ဆက်လုပ်တယ်။ ရှစ်လေးလုံး မျိုးဆက်ဆိုတာ ရောက်တဲ့နေရာမှာ အပင်ပေါက်ရမယ်လေ။ တိုင်းပြည်ကို တည်ထောင်တဲ့အခါ အနာဂတ်မျိုးဆက်တွေကို ပြုစုမျိုးထောင်ဖို့ အရေးကြီးပါတယ်။ ရောင်စုံပန်းတွေ ပွင့်လန်းနေဖို့ ရေလောင်း ပေါင်းသင်တဲ့ ဥယျာဉ်မျိုးတွေနဲ့တူတဲ့ သပြေလို အဖွဲ့မျိုးတွေဟာ တိုင်းပြည်အနာဂတ်အတွက် အလွန်အရေးကြီး ပါတယ်။ သပြေရဲ့ လုပ်ငန်းတွေ ဆက်လက် ရှင်သန်ကြီးထွားဖို့ အပြောင်းအလဲကို လိုလားသူတိုင်း ဝန်းရံအားပေးကြဖို့ တိုက်တွန်းလိုက်ပါတယ်။ လူမျိုး၊ ဘာသာ၊ အသားအရောင် မခွဲခြား၊ နယ်စည်းမခြားဘဲ သပြေလုပ်ငန်းများ ဆက်လက် အောင်မြင် တိုးတက်ပါစေကြောင်း ငါးနှစ်သားမွေးနေ့မှာ ဆန္ဒပြလိုက်ပါတယ်။

**서틴마웅 U Saw Tin Maung** 그림작가

버마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전을 위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따비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동화책 출간 사업에 그림으로 참여할 수 있어 너무 반갑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살이 되는 따비에가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ပန်းမျိုး စောတင်မောင်**

သပြေအဖွဲ့ရဲ့ ကလေးလူငယ် အသိပညာဖွံ့ဖြိုးတိုးတက်ရေးအစီအစဉ်မှာ ရုပ်ပြပန်းချီစာအုပ်တွေ ပါဝင်ရေးဆွဲခွင့်ရခဲ့လို့ ကျေးဇူးတင် ဝမ်းသာပါတယ်။ အမြဲလည်း ဂုဏ်ယူနေမှာပါ။ ငါးနှစ်သား"သပြေ"မှသည် ထာဝရခိုင်မြဲသော"သပြေ" ဖြစ်ပါစေကြောင်း ဆုမွန်ကောင်းတောင်းလိုက်ပါသည်။ "သပြေ"ထာဝရအောင်မြင်ပါစေ...

# 한국 후원인의 이야기

## 민경관 치과의사, 남아시아 후원모임

쉽지 않을 길을 가는 것에 염려도 되고 잘 안되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는데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은 요즘 미래를 위해 행복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끈기와 지혜로 여기까지 온 마웅저 대표와 정보임 대표에게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변화의 나침반으로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10년도 더 전에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처음 마웅저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버마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따비에가 버마와 한국 사회 모두에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진형민 동화작가

격동기를 살아가는 버마 아이들에게 '따비에'는 어떤 의미일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책을 만들어 나누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피는 따비에의 여러 사업들은 결국 삶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 아닐까요? 버마의 아이들도 한국의 우리들도 따비에와 더불어 더욱 잘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 하자작업장학교

따비에를 통해 버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킬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다 많은 이들이 따비에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면 좋겠습니다. 버마 어린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따비에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김재욱 재현고 교사

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3 담임을 계속 맡고 있다는 핑계로 따비에 활동을 거의 돕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요즘 정국이 하수상합니다. '우주의 신령한 기운이'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다들 혼을 잘 챙기시구요. 내년에는 따비에 활동이 더욱 자라나길 기원드립니다. 마웅저 대표님과 여러 활동가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구요. 늘 따비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최준용 따비에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으로서 함께하며 따비에에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언제나 제가 도움을 받고 얻어가는, 참 감사한 따비에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미얀마 어린이의 꿈을 후원하는 따비에가 되길 바랍니다!

## 한만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따비에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웅저 대표의 버마 귀국, 결혼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따비에에는 정치색을 띠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문화 전파에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따비에가 추구하는 사업이 버마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비에 힘팅!



## 최민 버마 교민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 따비에의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간 지금의 따비에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따비에가 버마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따비에!



## 김범룡

###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따비에가 단체를 만든 지 벌써 5살이나 되었습니다. 우선 동지적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따비에를 처음 만들 때 마웅저 대표가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버마 아이들 도와주세요'였습니다. 저는 두말없이 당연히 OK를 했습니다. 마웅저 대표와 저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버마와 버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5년이 되었지만 따비에에는 아직 걸음마를 걷는 가냘픈 작은 단체입니다.

지금껏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 문성근 흥사단

버마 어린이와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따비에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소중하게 모아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 주는 따비에 식구들의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버마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 따비에와 어린이들의 성장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따비에는 왜 버마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나요?

버마(미얀마)는 50년 넘게 군사독재의 나라였습니다.  
그 사이 버마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유엔은 1987년에 세계 최빈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 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졌고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 절반이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검열로 책은 사라져 갔고, 도서관도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버마의 어린이들은 정부가 발간하는 국정교과서 하나만 봐야 했습니다.  
교과서와 수업의 내용은 정부와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국영수 이외의 과목이 없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교육은 물론  
문학, 사회, 보건, 기술 등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 버마? 미얀마? 버마의 현재 국명은 미얀마이지만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에 의해 미얀마로 바뀌었기에(1989년) 원래 국명인 버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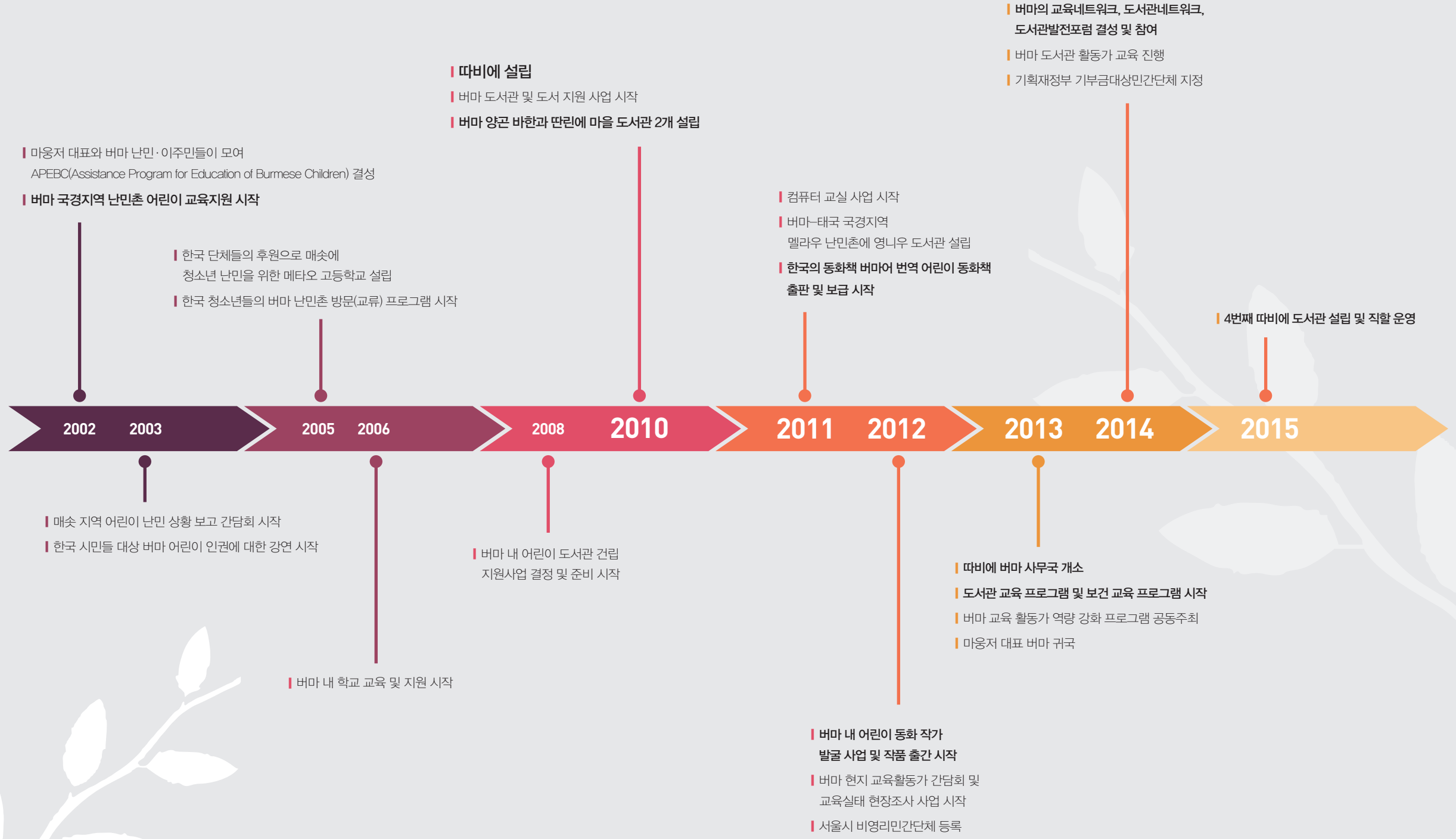
많은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언어와 역사를 배울 수 없고, 다른 교재의 사용도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세계와 문화를 만나고 감성을 익히고 생각하게 하는 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비에는 버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과 책을 통한 사업을 펼칩니다.  
따비에는 버마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열고 여러 분야의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려 합니다.  
버마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들어 출판과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책과 도서관이 없는 버마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놀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버마의 마을마다 세우는 일을 상상합니다.”**



# 따비에가 걸어온 길





# 2002 - 2015

2002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활동 시작(APEEC)  
2010 따비에 설립



## 버마(미얀마)

### 어린이 동화책 출간 및 보급

- 현재 총 14종 1만4천권 출간(한국 동화책 10종, 버마 어린이책 4종)
- 버마 내 절학교, 도서관, 어린이기관 등 450곳 보급

### 보건교육 프로그램

- 양곤, 떠린, 바고 내 절학교 및 어린이기관 등
- 소수민족 산, 문, 카렌 지역 절학교 및 어린이기관 등

### 도서관 설립

- 난미에인 도서관(양곤 바한)
- 뽀아인권 도서관(떠린)
- 멜라우 난민촌 영니우 학교 도서관(태국)
- 따비에 도서관(양곤 사우스오끼라)

### 버마 동화 작가 발굴 양성

- 버마 동화 작가 작품 공모 및 작품집 출간

### 버마 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 양곤 바니안나무 도서관 및 따비에 공동 진행
- 도서관 포럼 공동 주최

### 도서관 프로그램

- 양곤 사우스오끼라 15동 주민센터 및 따비에 도서관
- 떠린 뗏다마저띠까옹 절학교
- 양곤, 떠린 내 절학교 및 도서관

### 컴퓨터 교실

- 떠린 뗏다마저띠까옹 절학교 컴퓨터 교실
- 양곤 사우스오끼라 따비에 도서관

### 도서관과 학교에 도서/잡지 보급 및 지원

- 양곤, 떠린, 짜웃탄 등 10여곳 학교, 절학교,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및 잡지 보급, 기자재와 운영비 지원
- 찬따이웅 절학교, 민글라뻬티 절학교, 두다유아 도서관, 뽀뽀렛 도서관, 바니안나무 도서관, 뽀아인권 도서관, 따비에간 국립학교, 민게룬 국립학교, 제부옥사웅 절학교, 루네아만 도서관, HHP, 두카아린 도서관, 미다영치 도서관, 수타웅빠 절학교, 룬게아르만 도서관, 매숫 학교들과 난민촌 영니우 도서관 등

### 찾아가는 도서관과 북 캠페인

- 책을 접하지 못하는 마을과 소수민족 마을
-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북 캠페인



### 한국-버마 교류

- 양곤, 떠린, 매숫 방문 및 교류



# 도서관 설립 사업

따비에는 2010년부터 도서관이 부족한 버마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함께 도서관을 설립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곤, 탄린, 태국 멜라우 난민촌에 4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따비에는 책과 도서관이 없는 버마에서 '마을마다 도서관을' 기치로 도서관 설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난미에인 도서관 설립(양곤, 2010)

뵘나인권 도서관 설립(탄린, 2010)

영니우 도서관 설립(멜라우 난민촌, 2011)

따비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양곤, 2015)



## 난미에인 도서관

2010년에 양곤 바한 지역에 있는 샤프봄니까 절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샤프봄니까 절은 버마 소수민족의 고아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공간을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난미에인은 '지혜의 램프'라는 뜻입니다.

## 뵘나인권 도서관

2010년에 탄린 지역에 있는 뗏다마저띠까용 절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뗏다마저띠까용 절은 탄린 지역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영니우 도서관

2011년 버마-태국 국경지역에 있는 멜라우 난민촌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멜라우 난민촌에는 영니우 고등학교가 있고(학생 520명) 그 학교 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난민촌의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따비에 어린이도서관

2015년에 양곤 사우스오까라 지역에 만든 도서관입니다. 부지 구입부터 건립까지 한국과 버마의 따비에 후원인들의 후원금으로 만든 도서관입니다. 따비에가 직접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꾸려가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고 있습니다.



# 동화책 출판 보급 사업

따비에는 오랫동안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어 책이 부족한 버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세상과 문화를 접하고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동화책을 출간하고 보급합니다.

2011년 『강아지 똥』 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종의 한국 동화책과 4종의 버마 작가 동화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의 동화책은 따비에가 선정해 작가와 출판사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버마어로 번역해 현지에서 인쇄-제작합니다.

각 동화책을 1000권씩 제작해 버마의 도서관, 학교, 절 학교, 고아원, 공부방, 다양한 어린이 기관과 시설 450곳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7번째 동화책 출간부터는 여러 한국의 후원인과 기관에서 동화책 제작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지금까지 출간 · 보급한 한국의 동화책(출간순)

- 『강아지 똥』(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
- 『길 아저씨 손 아저씨』(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국민서관)
- 『말썽꾸러기 또또』(김성은 글, 한병호 그림, 길벗어린이)
- 『아기 소나무와 권정생 동화나라』(권정생 글, 이형진 그림, 웅진주니어)
- 『개구쟁이 노마와 현덕 동화나라』(현덕 글, 신가영 그림, 웅진주니어)
- 『새끼 개』(박기범 글, 유동훈 그림, 낮은산)
- 『너하고 안 놀아』(현덕 글, 송진현 그림, 원종찬 엮음, 창비)
-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글, 오돌또기 그림, 사계절)
- 『서로를 보다』(윤여림 글, 이유정 그림, 낮은산)
- 『우리는 학교에 가요』(황동진 글그림, 낮은산)



## 지금까지 출간 · 보급한 버마 작가의 동화책(출간순)

- 『새 잎들과 따비에』(버마 신임 작가들 소설 모음집)
- 『우리의 대화, 어린이 문화 이야기』(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 『똥똥이와 어린이 문화 이야기』(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 『아름다움에 대하여』(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따비에는 2013년부터 책을 접하기 어려운 버마의 어린이들이 책과 좀 더 친해지고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화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에게 독서 습관을 익히며 책을 통해 생각과 정서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따비에의 책 읽어주는 책은 읽어주는 사람에게도 낭독 활동을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탄린의 뗏다마저띠까용 절 학교에서 초등 4학년의 95명에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해 2014년부터는 자부옥 사용 절 학교, 미엿에데나 절 학교, 따비에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프로그램 방식도 어린이들에게 지루해지기 쉬운 단순한 독서를 넘어 몸을 움직이거나 놀이를 통해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도서관 프로그램은 '행복한 세상(Our Happy World)'이라는 이름으로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토론하기, 동화 구연, 낭독회, 발표회, 견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간담회도 열고 있으며, 프로그램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 보건 교육 프로그램 사업

2013년 '찾아가는 어린이 보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따비에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보건과 위생 교육이 전무한 버마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습관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몸에 대한 이해, 위생, 운동, 영양, 구강 위생, 사회적 환경과 건강, 정신 건강, 질병 예방 습관, 안전 등을 주제로 세분화해 놀이와 시각적 이해, 그리고 실습을 통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탄린의 뗏다마저띠까옹 절 학교 초등 5학년의 74명을 대상으로 주 2회 3개월의 과정으로 시작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는 자부옥샤옹 절 학교 등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양곤과 탄린의 절 학교 3곳을 비롯해 베고, 몬, 산, 카렌 등 소수민족 지역 4곳에서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버마의 병원(싼삐야 국립 병원)과 협력해 혈액형을 모르는 어린이 713명을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 및 B형 간염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비에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학을 전공한 카이몬 따비에 사무국장이 교육을 맡고 있으며 버마의 의사와 약사를 비롯해 보건 관련 청년들이 자원활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어린이에게 적절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으며, 보건 교육 자료와 건강기록 카드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만들어 보건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활동을 하는 버마 청년들 및 마을 주민들과 공부하며 보건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비에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교육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어린이들에게 단기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교실 사업과 언어 교실 사업

따비에는 2011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기 어려운 버마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실용 기술을 보급하고자 무료 컴퓨터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기본 과정으로는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초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기초 교육이 진행되며, 디자인 교육 등 심화 과정 교육을 열기도 합니다. 보통 3개월 과정으로 한 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7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뽀나인권 도서관과 함께 뗏다마저띠까옹 절에서 시작된 컴퓨터 교실은 매 과정 수강생 3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6기까지 77교실이 열렸고 660명이 참가해 그중 501명이 수료했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27기(45명 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따비에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와 IT 중요성' 주제로 기획 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따비에는 2014년부터 언어 교실을 열고 한국어와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 언어 교실은 따비에 사무실 및 따비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 등 예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활동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교와 도서관 지원 사업

따비에는 학교와 도서관에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마에서 발간되는 어린이 잡지와 도서 12~13종씩을 매년 10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 설립을 지원하거나 열악한 학교를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열악한 도서관들에 기자재와 책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버마의 학교와 도서관에 책을 지원하는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악한 소장 도서 상황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12~13종씩 연 1500권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따비에간 도서관, 따비에간 국립학교 도서관, 땃다마저띠까웅 절 학교 도서관, 뚜카아린 도서관, 룬게아르만 도서관, 바니안 나무 도서관, 베와에린영 도서관(자부옥샤웅 절 학교), 뽀뽀렛 도서관, 뽀나인퀸 도서관(땃다마저띠까웅 절 학교), 마하테판 절 학교 도서관, 민글라멧티 절 학교 도서관, 민게룬 국립학교 도서관, 민마허 학교 도서관, 밋다영치 도서관, 수타웅빠 절 학교 도서관, 인짚 학교 도서관, 찬따아웅 절 학교 도서관, 케마알마 절 학교 도서관, 투타유아 도서관(산다야마 절 학교), HHHP(Happy Heaven Humanity Project) 고아원 등 20여 곳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업은 한국의 여러 후원 기관과 연결해 지원해 왔습니다. 버마, 매솟, 난민촌의 학교나 단체에 한국의 후원 기관들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린의 땃다마저띠까웅 절 학교 증축(건물 1동 4개 교실)을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정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찬따아웅 절 학교, 미엿에데나 절 학교, 아웅란 마을 학교 등 여러 절 학교를 후원했습니다. 매솟과 난민촌에는 메타오 고등학교, BLSO 초등학교, DPNS 초등학교, 민마허 학교, 사무터 초등학교 등을 설립하거나 지원했으며 교육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난민촌의 열악한 도서관을 작게나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글라멧티 도서관, 세타나신 도서관, 아이타뷰 마을도서관, 찬따아웅 도서관, 투타유아 도서관 등에 도서를 비롯해 책꽂이, 책상과 의자 등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 한국-버마 교류 프로그램

따비에는 한국의 청소년들, 단체들, 개인들이 버마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양국의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버마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교류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한국의 청소년들 및 단체들이 버마 난민들이 모여 사는 버마-태국 국경지역의 매솟과 인근 난민촌에 방문해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버마 양곤과 탄진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학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통합기행 과정을 통해 교류했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는 2006년부터 아시아평화기획단을 통해 2014년까지, 하자작업장학교는 2007년 글로벌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매솟과 난민촌의 학교와 단체를 방문하고 버마의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며 놀기도 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하고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난민촌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배우고 느끼기도 하고 후원장터, 북 캠페인, 벽화 그리기 등 자원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YBA, 미지센터, 산티학교,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들, 성공회대 등 대학생들도 단기 교류팀을 꾸려 다양한 형태로 방문하며 양국의 청(소)년들이 교류했습니다.

또한 난민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서울YWC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공회대학교, 남아시아 후원모임 등 다양한 한국의 단체들이 매솟과 난민촌, 버마로 방문해 한국-버마의 단체들이 교류하며 양국의 평화·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벌여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따비에가 펼치는 활동과 사업과 연계한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비에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과 학교 등 교육 현장 방문, 동화책 출판사와 인쇄소 방문 및 관계자 만남, 연대하는 단체들과의 만남과 교류, 따비에의 북 캠페인 참여, 문화 탐방 등으로 구성해 버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버마 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과 교육운동 연대

따비에는 2010년부터 꾸준히 버마 어린이 교육 상황과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버마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교육 학교 현장을 비롯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 학교는 물론 교육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의 실태와 문제점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상황, 교육 커리큘럼, 교재 및 자재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학교, 절 학교, 도서관, 대학, 어린이·청소년 교육 단체, 작가 단체, 출판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와 교류하고 정보를 수집했고 필요한 자원과 교육 관련 수요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또한 버마 현지 교육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지며 버마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버마 교육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했습니다. 2013년에는 미지모(미얀마를 지원하는 단체실무자들의 모임)를 통해 버마의 활동가들이 한국과 버마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 훈련 과정을 진행했으며, 한국에서는 관련 단체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등을 방문해 한국의 도서관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버마의 도서관 활동가들,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및 강사 등과 함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및 도서 관리, 사무 업무, 재정 관리,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법, 의사소통법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의 교육 개선을 위해 도서관, 교육단체, 교사 등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벌이는 버마 교육개정 네트워크(NNER)에 참여해 연대하고 있으며, 버마의 도서관 사서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한 EDU-NET에 참여해 도서관 발전을 위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버마 인권 단체 Equality Myanmar에 연대해 버마의 시민, 여성, 어린이 인권을 위한 연대 활동과 캠페인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도서관 발전과 네트워크를 위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국립도서관 관계자와 함께 도서관 발전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민간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함께한 첫 시도였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립도서관의 문제점, 도서관 운영 실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폭넓게 버마의 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토론했으며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버마 동화작가 발굴 사업

버마에는 오랜 군사독재로 출판언론의 자유가 없었기에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쓸 수 없었고 새로운 작가들이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책이 나오지 않아 매우 귀해졌고 도서관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러한 버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따비에는 기존의 작가들이 다시 글을 쓰고 신인 작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버마 창작동화 작가 공모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따비에와 함께하는 작가들이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청소년 문학 작품 공모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잡지와 신문에 공모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따비에는 공모전(15명 응모)에 당선된 작품 5편과 기존 작가들이 새로 쓴 작품 5편을 묶어 『새 잎들과 따비에』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했으며 각 도서관에 보급하는 한편 서점에도 배포했습니다.

이후에는 새 동화작가 터루와 그림작가 서틴마웅이 쓰고 그린 동화책 3종을 출간하며 동화 작가를 지원했습니다. 따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버마 현지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간 · 보급한 버마 작가의 동화책(출간순)**

- 『새 잎들과 따비에』 (버마 신인 작가들 소설 모음집, 2013)
- 『우리의 대화, 어린이 문화 이야기』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2013)
- 『똥똥이와 어린이 문화 이야기』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2014)
- 『아름다움에 대하여』 (터루 글, 서틴마웅 그림, 2015)



『새 잎들과 따비에』



『우리의 대화, 어린이 문화 이야기』



『똥똥이와 어린이 문화 이야기』



『아름다움에 대하여』

##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과 북 캠페인 사업

따비에는 2014년부터 찾아가는 도서관(이동 도서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비에가 지원하고 있지만 도서관을 만들기 어려운 학교나 마을에 바구니에 책을 담아 찾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바구니에 담긴 책을 전하고 다음달에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4년에는 양곤 인근의 학교와 마을 5곳을 찾아가 진행했으며 2015년에는 소수민족 지역(베고, 산, 몬, 카렌) 마을 4곳을 찾아가 진행했습니다.

따비에는 2013년부터 버마에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원과 백화점 앞에서 정기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따비에가 만든 동화책을 비롯해 버마에서 발간되는 어린이책들을 함께 펼쳐 놓아 버마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과 건강에 관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동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는 따비에의 사업을 알리며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베희시장 방식의 후원장터를 열거나 모금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여는 행사에도 북 캠페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긴급 구호와 재난 피해 지원 사업

따비에는 버마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필요한 피해 지원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큰 규모로 하지는 못하지만 긴급 구호와 피해 지원에 나서는 현지 구호 단체나 기구에 협력하며 현장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곳의 지원을 모아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찾아오는 구호·지원 단체들을 연결하기도 하며 한국에서 모아주신 성금을 전달하거나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버마 남부 지역 나르기스 태풍 피해, 2012년 움피엠 마이 난민촌 화재 피해, 2012년 쉐보 지역 지진 피해, 2015년 버마 홍수 피해 등에 긴급 구호와 피해 지원 활동에 따비에가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긴급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할 때는 버마 현지 단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 청소년 동아리 청년위원회 활동

따비에는 한국의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학교 동아리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성미산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재현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 등의 청소년 동아리들이 따비에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세계시민사회, 버마의 평화, 난민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비롯해 버마 새해 축제(띠잔 물축제), 난민의날 행사와 퍼레이드, 이주민 예술제, 다문화행사, 따비에 후원행사 등에 참여해 따비에의 캠페인과 자원활동에 함께했으며, 학교 축제 등에서 버마 카페나 장터 행사를 열어 따비에를 후원했습니다.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해 따비에로 수익금을 기부해 주기도 했으며 따비에의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동아리들은 따비에의 청소년 동아리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2014년부터 따비에는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비에의 청년 회원들이 스스로 활동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청년들의 교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버마를 알기 위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버마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등 청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했습니다. 따비에의 각종 행사와 거리 캠페인을 맡아 진행하고 한국에 따비에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왔습니다.



## 평화인권 교육과 캠페인 사업

따비에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강연, 간담회, 캠프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많은 한국의 고등학교, 청소년 단체, 국제개발협력단체, 도서관에서 버마의 역사·문화·사회·어린이·교육·민주주의·인권·평화 등의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태국-버마 국경지역 교육 포럼(2012), 버마의 오늘 버마의 사회운동 간담회(2013), 미얀마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미얀마의 현재, 미래 그리고 발전(2013), 버마 학생단체 ABSFU 대표 간담회(2014), 술락 시바락사 박사 초청 강연회(2014), 전환기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2015) 등 미지모, 하자를 비롯해 다양한 따비에 협력기관들과 함께 초청 강연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따비에는 '마웅저와 함께 떠나는 평화·인권 여행'이라는 청소년 평화·인권 캠프를 열었습니다. 따비에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또래의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며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교육의 장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버마와 난민에 대한 인식, 평화와 인권 감수성, 국제 평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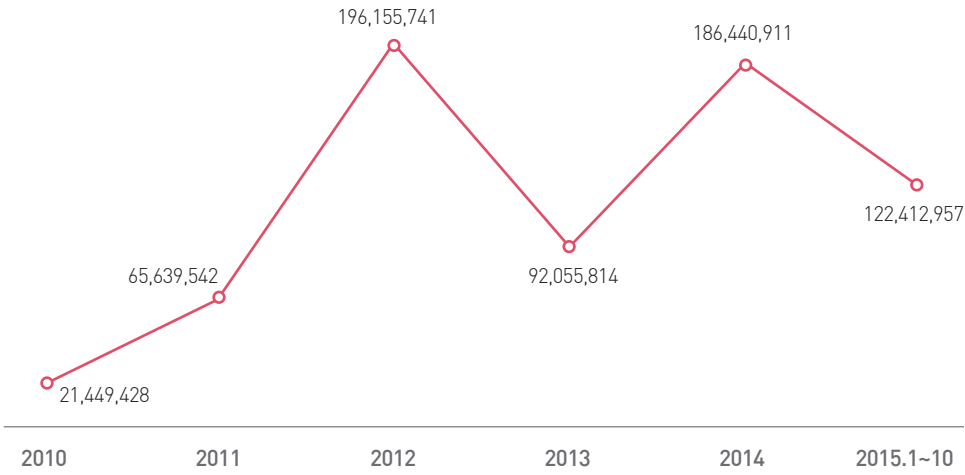


2014년에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 난민들을 위한 자발적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따비에와 관계 맺고 있는 청소년 난민 4명과 함께 여행-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난민 이슈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출신의 청소년 난민들이 여행을 다니고 버마의 난민촌 학교를 방문해 버마 청소년 난민들과 교류하고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해외여행 경험을 '우리를 연결해 줄 새로운 길'이라는 모토로 전시회를 열고 한국의 청소년 난민들에 놓인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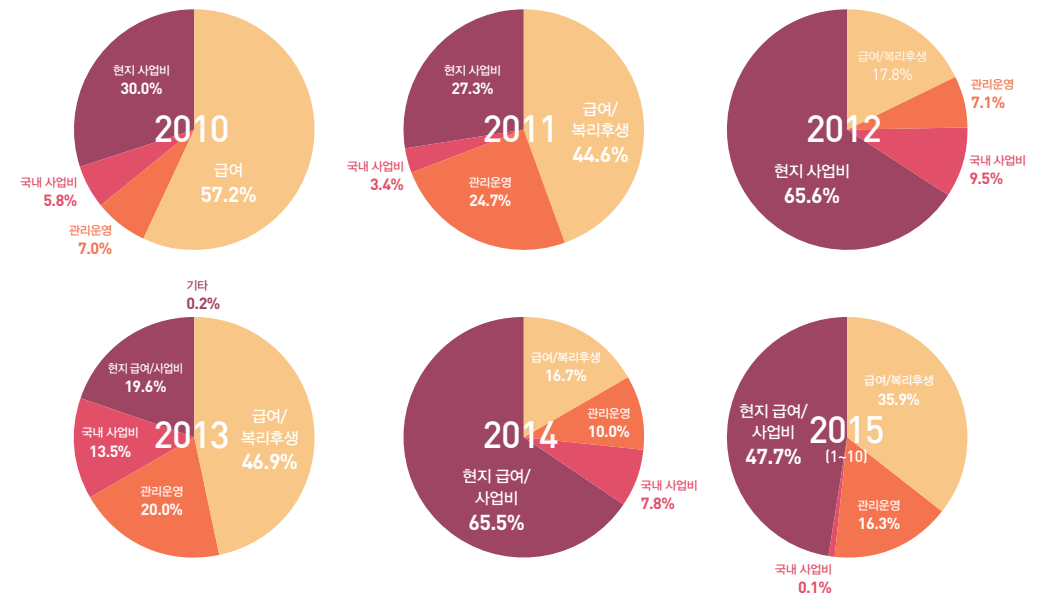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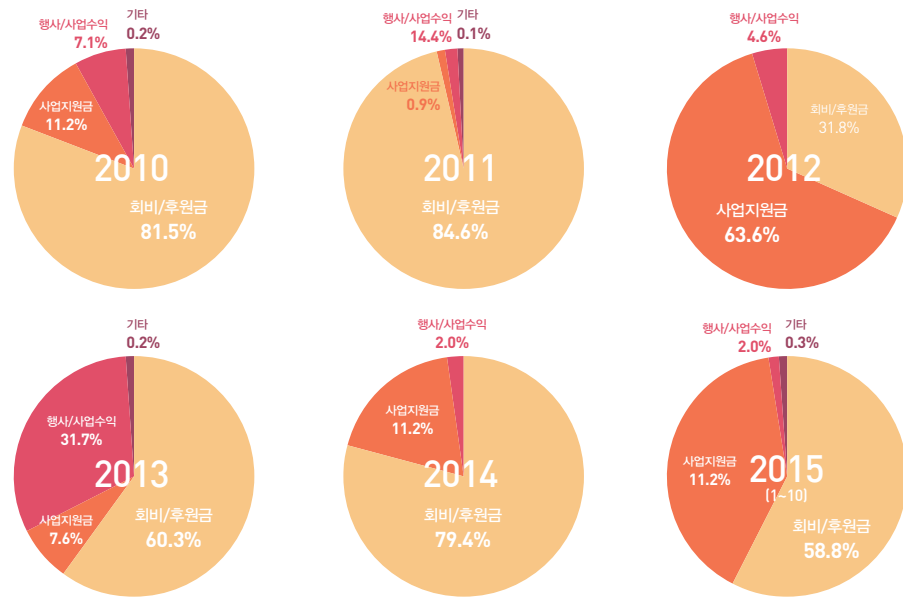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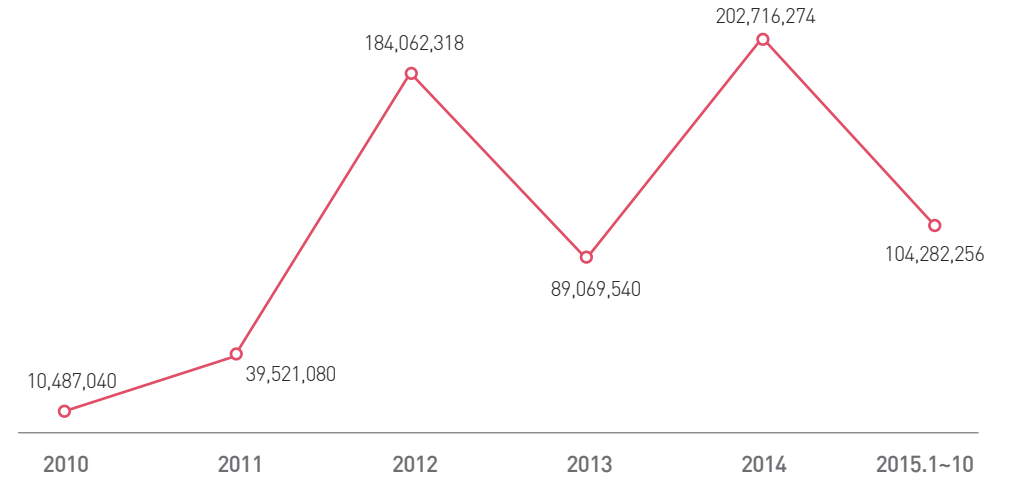
따비에는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들과 다양한 평화인권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프리 버마 캠페인, 버마 난민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볼펜 캠페인, 표표아웅 등 버마 수감자 석방 캠페인, 버마 8888 민주항쟁 기념 캠페인 등을 벌였고, 세계난민의날에는 난민 지원 단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난민 인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거리 행진, 플래시몹, 공연, 전시 등으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와우북페스티벌, 동네책축제, 어린이날 축제, 평화난장, 평화군축박람회 등 수많은 축제와 행사장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고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 수입



### 지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0
회비/후원금	17,407,200	55,544,200	62,297,824	55,738,800	148,128,640	71,946,500
사업 지원금	2,450,696	600,000	124,705,016	7,000,020	34,657,500	49,978,952
행사/사업수익	1,550,000	9,441,000	9,131,570	29,149,370	3,642,180	327,000
기타	41,532	54,342	21,331	167,624	12,591	160,505
수입 총액	21,449,428	65,639,542	196,155,741	92,055,814	186,440,911	122,412,957

(단위 : 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0
급여/복리후생	6,000,000	17,650,000	32,790,200	41,767,960	33,932,380	37,409,750
관리운영	730,180	9,754,640	13,077,253	17,742,140	20,127,050	16,991,028
국내 사업비	606,120	1,334,020	17,421,767	12,094,440	15,796,434	113,040
현지 사업비	3,150,740	10,782,420	120,773,098	17,465,000	132,860,410	49,768,438
지출 총액	10,487,040	39,521,080	184,062,318	89,069,540	202,716,274	104,282,256

(단위 : 원)

# 후원안내

버마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는 따비에에 함께해 주세요.

따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 등록 1420호)이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기획재정부 제2014-104호)입니다.

후원해주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 따비에의 사업과 활동을 비롯해 회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참여시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후원 안내나 사무국 문의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따비에 후원계자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02-451943 예금주\_따비에



# 다비에와 함께하며 후원과 기부와 지원과 수고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으로서 정기 후원을 해 주시며 물심양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경란, 강대선, 강명구, 강민숙, 강연배, 강지원, 강춘희, 강혜명, 강혜원, 계성애, 고우현, 고은경, 고종환, 고효상, 곽영걸, 곽호종, 구윤모, 구자정, 권기민, 권오재, 권영상, 권유선, 금선스님, 김경민, 김경숙, 김규환, 김기명, 김남희, 김대훈, 김동영, 김동훈, 김동현, 김동희, 김명희, 김민규, 김병찬, 김서현, 김선영, 김소희, 김수지, 김수한, 김연주, 김영아, 김영화, 김용민, 김용현, 김원경, 김유정, 김유진, 김윤정, 김윤진, 김윤찬, 김은, 김인섭, 김인해, 김재욱, 김정세, 김정은, 김정화, 김종명, 김종현, 김주형, 김지선, 김지승,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향, 김진, 김진환, 김채운, 김초롱, 김태풍, 김학구, 김해인, 김형우, 김홍희, 김효민, 나재은, 남재훈, 남정우, 남지연, 너무나멋진북홀미팅(너멋홀), 노상미, 노정희, 노하예진, 대광사, 도미경, 도세영, 도입방주, 땅예, 류승호, 류승화, 묘저, 묘현스님, 문경환, 문세영, 문인숙, 민경관, 민경대, 민정희, 박경수, 박규섭, 박대인, 박동석, 박민근, 박병철, 박보경, 박상희, 박서현, 박석진, 박성중, 박성희, 박소연, 박수영, 박영신, 박용규, 박용근, 박용규, 박재범, 박정우, 박정인, 박주형, 박주희, 박주희, 박준우, 박지현, 박진숙, 박태현, 박혜리, 배국환, 배동현, 배성호, 백상환, 백송연, 백연지, 범기영, 변미라, 서수민, 서한성, 성상희, 성선영, 성준범, 성지윤, 성현목, 성현우, 손보경, 송지훈, 송진경, 신나라, 신동진, 신윤재, 신장현, 신정섭, 신지현, 신혁진, 심정섭, 안서하, 안순규, 안유리, 안정민, 안정희, 안지영, 안홍철, 안효성, 양근, 양기문, 양연수, 양진아, 엄병천, 여해, 엄창근, 영담스님, 오민정, 옥유호, 우경윤, 우미정, 우민재, 유기경, 유도영, 유보미, 유봉인, 유소연, 유영아, 유재숙, 유지현, 유혜경, 유혜영, 유화영, 윤건희, 윤길자, 윤나라, 윤모아, 윤무영, 윤상일, 윤익진, 윤정숙, 윤정은, 윤지혜, 윤현아, 이강인, 이경선, 이기, 이대훈, 이두현, 이명화, 이민규, 이보라, 이복선, 이삼미, 이상우, 이상희, 이선희, 이성미, 이수정, 이슬기, 이안지영, 이영림, 이용수, 이원호, 이은애, 이은진, 이재웅, 이정문, 이정심, 이정인, 이종률, 이종민, 이주희, 이진아, 이창희, 이철진, 이춘희, 이한숙, 이현아, 이현윤, 이혜인, 이화영, 임미원, 임서영, 임선영, 임수진, 임은정, 임창연, 임현정, 자주, 장경미, 장상미, 장진희, 장태경, 장해영, 장효정, 전영주, 전재용, 전준, 전필교, 전현진, 정국희, 정미영, 정병국, 정보임, 정부기, 정상미, 정상울, 정선애, 정소희, 정슬기, 정신탁, 정유경, 정은성, 정하심, 정효은, 조경선, 조기근, 조선주, 조재연, 주영옥, 진형민, 진효탁, 차미경, 차현숙, 천유라, 최경미, 최만중, 최문식, 최민, 최병호, 최석민, 최수근, 최신영, 최원근, 최윤희, 최준석, 최준용, 평화바닥, 표희순, 하승창, 한경원, 한순웅, 한지연, 허원경, 현주, 홍세미, 홍순영, 홍지연, 황경아, 황석찬, 황인경, 황정아, 황홍원, Khine Mon(카이문), Ko Wnne(꼬완), Maung Ye Win Lat(마웅예윈랏) Maung Zaw(마웅저), Nan Okata(난오카타), PARK Israr(박이스라), Soe Moe Thu(소모뚜), Soe Thiha(소띠하)

## 후원금이나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준 단체와 기관들입니다.

5·18기념재단,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관음사, 난민인권센터, 남아시아 후원모임, 녹색병원, 느티나무도서관, 대전버룩시장, 탄진과 친구들, 메디피스, 미안마공동체, 미지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석왕사, 성공회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 성미산학교, 셸러드 극단, 세상과함께,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시아의친구들, 아현동 주민센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ODA Watch, 오마중학교 학생들, 울산재단, 유스클럽, 은행나무어

린이도서관, 이우고등학교, 참여연대, 컴윈(Comwin),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바닥, 하자센터, 하자직업장학교, 한국노동복지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임플란트연구회(ORI), 한국YBA, 함께하는 시민행동, 향린교회, 흥사단, 희망제작소 모금학교, ADBERC, APEBC, PEBC [그 외 기록하지 못한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함께해 주었으며 버마를 방문해 버마 사무국에 후원해 주었습니다]

## 많은 분들이 후원금이나 물품을 후원해 주시거나 재능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김미영, 김유정, 김정순, 김준배, 늦봄학교, 단지, 도입방주, 동우스님, 라일라, 문미란, 바다로떠난바람, 박은홍, 박재봉, 박정우, 박철, 성전스님, 손범락, 송곡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다누리, 심인애, 양길승, 오늘내일, 오종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유도영, 이강진, 이경희, 이기, 이명화, 이영현, 임순자, 재현고등학교 동아리 JMS, 지룬스님, 최진규, 홍, 화곡고등학교 동아리, Sagawa(사가와), U Kavinda(우카빈다) 스님 [그 외 기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었으며 버마를 방문해 버마 사무국에 후원해 주었습니다]

## 다비에의 사업과 활동에 함께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넥슨, 녹색병원,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삼성공정학재단, 서울YWCA, 서울시 청년허브, 아름다운재단, 연합뉴스 기자들, 테이크아웃드로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현대기아자동차-성공회대학교

## 버마 어린이 동화책 발간에 소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출판사] 길벗어린이, 국민서관, 낮은산, 사계절, 웅진주니어, 창비  
[작가] 권정생(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김성은, 김용철, 박기범, 송진현, 신가영, 오돌또기, 원종찬, 유동훈, 이유정, 윤여림, 정승각, 한병호, 현덕, 황동진, 황선미

## 그리고

마웅저, 정보임 두 대표를 비롯해 영담스님, 원민우, 탄진 님이 고문과 자문으로 다비에 창립 때부터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유보미 님이 감사를 맡아주셨습니다. 김규환, 김동훈, 김희욱, 민경관, 박준우, 안지영, 엄창근, 진형민, 최병호, 최신영, 한정아 님이 운영위원으로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영하, 김초롱, 달다(천유리), 박지현, 엄창근, 오민정, 유소연, 윤모아, 자주(신윤재) 님이 한국 사무국 활동가로, 띨자, 민툰, 수웨이, 우폐인, 카이몬이 버마 사무국 활동가로 애써 주었고, 강지원, 구윤모, 김정세, 난오카타, 신나라, 최준용 님이 청년위원으로 활동해 주었습니다.





## 버마 어린이와 함께 꿈 꿉니다 따비에와 함께해 주세요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612호 (마포동 136-1)

전화 | 070-7642-9319

이메일 | [thabyaekorea@gmail.com](mailto:thabyaekorea@gmail.com)

홈페이지 | <http://thabyae.net>

페이스북(한국) | <https://www.facebook.com/thabyaekorea/>

페이스북(버마) | <https://www.facebook.com/ThaByae/>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02-451943 예금주\_따비에

회원/후원회원 가입 | 홈페이지에서 후원 안내나 사무국 문의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따비에 5주년 활동 보고서 2010-2015

발행일 : 2015. 12. 16

발행처 : 따비에

발행인 : 마웅저·정보임

편집 : 염창근·오민정

디자인 : 강서희

\* 이 자료는 따비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